

광양, 염포산단 의혹 관련 “법령 따라 정상 추진”

시 “고소인 주장 단계... 사실관계 확인·위법성 판단 이뤄지지 않아”

광양시는 최근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염포 일반산업단지 고소 내용에 대해 “행정절차는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 중인 사항”이라고 1일 밝혔다.

■(주)마로아이엔디 측의 고소장 제출 관련

앞서 일부 언론은 염포 일반산업단지 추진 과정과 관련해 사업시행자인 (주)마로아이엔디 측이 광양시장 및 관계 공무원 등을 대상으로 전남경찰청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보도했다.

이에 대해 광양시는 해당 보도 내용은 고소인 측 주장에 기반한 사항

으로, 현재까지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위법성이 판단된 사항은 아니라고 밝혔다. 아울러 현재 수사기관에 고소장이 접수된 단계로, 향후 수사기관의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협조할 예정이다.

■염포일반산업단지의 산업단지 지정 절차 방해 관련

광양시는 염포 일반산업단지와 관련한 행정절차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추진 중이며,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계기관 및 관계부서 협의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산업단지 지정계획 미반영은

광양시의 개입에 따른 사항이 아니라 국토교통부 주관 조정회의 과정에서 주민 민원, 토지동의서 확보 미흡 등 제반사항이 종합 검토되어 결정된 사항이라고 밝혔다.

광양시는 지난 2월 20일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지정계획 미반영 사유와 향후 보완 계획 등을 설명한 바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광양시는 산업단지 지정 및 개발과 관련해 기반시설 계획, 관계기관 협의 사항, 주민 의견 및 주변 개발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있으며, 특정 사업자를 배제하거나 사업 추진을 부당하게 제한할 목적으로 행정

을 처리한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공무원들의 산업단지 반대 집회에 참석 관련

광양동 지역발전협의회에 요청에 따라 지역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지역 현안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참석한 사항으로, 특정 사업 추진에 반대하거나 행정절차에 개입하기 위한 목적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광양시 관계자는 “현재 보도된 내용은 고소인 측 주장을 중심으로 보도된 사항으로, 사실관계가 확인되거나 위법성이 인정된 사항은 아니다”며 “앞으로도 관련 법령과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업무를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광양=조순의 기자**

순천미식주간 ‘맛과 예술이 만나다’ 개최

오는 20~27일, 순천 곳곳서 펼쳐지는 여름 미식여행

순천시시는 오는 20일부터 27일까지 8일간 순천시 일원에서 ‘2026 순천미식주간’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올해 순천미식주간은 ‘맛과 예술이 만나다’를 슬로건으로, 순천의 음식자원과 예술 콘텐츠를 아우르는 여름 미식축제로 추진된다. 시민과 관광객은 순천 곳곳에서 먹고, 보고, 체험하고, 머무르며 순천만의 맛과 감성을 오감으로 즐길 수 있다.

‘2026 순천미식주간’은 6월 20일부터 21일까지 남문터광장에서 현장을 운영하고, 이후 6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미식투어·치유미식 트레일런 등 순천 곳곳을 잇는 미식여행으로 이어진다.

축제의 시작을 알리는 남문터광장 현장행사 기간에는 미식마켓·미식체험, 최현석 셰프 쿠킹토크쇼, 로컬셰프 토크쇼, 순천맛집 인증식, 포도존 등이 운영된다. 도심 속 광장에 순천의 맛과 여름 감성이 더해져, 시민과 관광객이 먹고 쉬고 즐기는 미식광장으로 꾸며질 예정이다.

특히 올해 현장행사는 예총과 합

개하는 정원에술제와 연계해 더욱 풍성하게 꾸며진다. 순천의 맛을 즐기는 미식 콘텐츠에 공연, 전시, 체험 등 예술 프로그램이 더해져, 남문터광장 일원이 맛과 예술이 함께 흐르는 여름 축제장으로 채워질 예정이다.

가장 눈길을 끄는 프로그램은 최현석 셰프 쿠킹토크쇼다. 대중에게 친숙한 최현석 셰프가 순천의 식재료와 지역 기업의 제품을 무대 위에 올려, 순천의 맛을 셰프의 감각으로 새롭게 풀어낸다.

현장에서는 최현석 셰프가 선보인 요리를 직접 맛볼 수 있는 시식 기회도 마련돼 방문객들에게 더욱 특별한 미식 경험을 선사할 예정이다.

6월 22일부터 27일까지는 미식주간의 무대가 순천 전역으로 이어진다. 전통시장과 지역 공간을 연계한 미식투어, 낙안읍성의 정취를 담은 미식 프로그램, 자연 속에서 걷고 맛보는 치유미식 트레일런 등 순천의 공간과 이야기를 따라가는 프로그램이 펼쳐진다.

／**순천=조순의 기자**

곡성, 체류형 관광 활성화

화순·남원 리조트 할인 협약

곡성군이 지역 내 숙박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체류형 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해 인근 지자체의 대형 숙박시설과 손을 잡았다.

곡성군은 남원 컨벤션리조트 및 화순 금호리조트와 각각 관광 활성화를 위한 상호 연계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협약은 곡성의 대표 관광지인 ‘섬진강기차마을’이 가족 단위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내 대형 숙박시설이 부족해 당일 관광에 머무르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추진됐다. 인근 지자체의 풍부한 숙박 인프라를 연계해 관광객의 지역 내 체류 시간을 늘리겠다는 전략이다.

곡성군은 화순과 남원 리조트 이용객이 섬진강기차마을을 방문하면 입장료와 증기기관차, 레일바이크 탑승료를 30% 할인한다.

남원 컨벤션리조트는 기차마을 이용객에게 조식과 웰컴 드링크, 레이트 체크아웃(12시) 서비스를 제공한다.

화순 금호리조트는 기차마을 입장권을 지참한 관광객에게 아쿠아나(워터파크) 이용료 30%, 온천 20%를 할인한다.

봉사하며 여행하는 특별한 동행... 고흥 ‘불린투어’ 시작

자원봉사·고향사랑기부·관광 결합, 연말까지 10회 운영



고흥군은 지난달 30일부터 31일까지 1박 2일간 전국에서 모인 4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불린투어 프로그램을 성황리에 운영했다고 밝혔다.

불린투어는 자원봉사(Volunteer)와 여행(Tour)을 결합한 개념이다. 이번 프로그램은 고흥군 고흥사랑기부체 지정기부사업인 ‘소록도의 천사 마리안느와 마가렛 나눔과 추억의 공간 조성’ 사업에 10만 원을 기부한 신규 가입자를 대상으로 참가자를 모

집해 진행됐다.

이번 불린투어는 농촌 봉사와 자원봉사 교육, 지역 관광자원을 연계해 봉사의 의미를 더하고 참가자들에게 고흥만의 특별한 지역 체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째 날 참가자들은 고흥군의 선진 농업 기반인 스마트팜에 방문해 방울 토마토 수확과 하업 자르기 등 일손 돕기 봉사활동을 하며 생산과정에 직접 체험하고 농가의 인력 부족 해소에

도 기여했다. 이어 저녁에는 녹동항 드론쇼를 관람하며 고흥의 아름다운 야간 관광 콘텐츠도 함께 체험했다.

둘째 날에는 소록도 마리안느·마가렛 나눔연수원에서 강인정 원장의 강연을 들으며 마리안느와 마가렛 두 간호사의 숭고한 봉사정신을 되새겼다. 이어 소록도를 방문해 해안가 환경정화 활동을 펼치는 등 자원봉사와 인력교육이 융합된 고흥형 콘텐츠를 경험했다.

불린투어에 참여한 한 참가자는 “여행의 즐거움과 봉사의 보람, 기부자로서 자부심을 동시에 느끼는 특별한 경험이었다”며 “고흥의 매력을 흠뻑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됐다”고 소감을 전했다.

한편, 고흥군 이번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연말까지 총 10회에 걸쳐 불린투어를 운영할 계획이며, 자원봉사와 관광을 연계한 체류형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고흥=천기만 기자**

순천,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서 ‘산사와 갯벌’ 홍보

내달 19일부터 11일간 부산 벡스코서 순천의 세계유산 가치 전 세계에 알린다

순천시가 오는 7월 19일부터 29일까지 11일간 부산 벡스코(BEXCO)에서 개최되는 ‘제48차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에서 순천의 유구한 역사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담은 세계유산 홍보부스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유네스코 사무총장을 비롯해 21개 위원국, 196개 협약국 대표단 등 세계유산 전문가와 기자단 3,000여 명이 참석하는 이번 국제 행사에서 순천시는 고유의 세계자연유산과 세계문화유산을 동시에 보유한 도시로서의 위상을 전 세계에 각인시킬 계획이다.

이번 홍보부스의 주제는 ‘순천: 산사와 갯벌(Suncheon: Sansa and Gatbol)’이다. 사유의 산책길인 ‘선암사’와 지구의 첫 숨을 간직한 ‘순

천갯벌’을 두 축으로 삼아 순천의 깊은 숨결과 미학을 전달하기 위해 기획됐다.

전체적인 연출은 따뜻한 우드톤 바탕에 유연한 천(fabric)의 질감을 매개로 활용해 자연과 전통의 조화를 시각화했다. 특히 선암사 스님들의 붉은 ‘가사’ 색감과 순천갯벌을 상징하는 ‘농계의 파란색’을 강렬하게 대비시켜 한국 전통의 미와 생태계의 역동성을 한눈에 느낄 수 있도록 디자인한 것이 특징이다.

공간은 관람객이 순천의 유산을 오감으로 느낄 수 있도록 입체적으로 구성된다. 선암사 구역에서는 승선교를 활용한 아트월을 배경으로 기와 불사, 돌탑쌓기 등 한국의 전통 불교문화를 직접 경험할 수 있다.

순천갯벌 구역에는 실제 빨배 오브제를 활용한 설치 미술과 포토존이 마련돼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한다.

아울러 순천의 자연과 역사를 담은 구슬채찍진 전시와 함께 헤드셋으로 순천만의 생생한 자연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청음 공간도 운영된다.

참관객들의 흥미를 돋우기 위한 이벤트도 풍성하다. 매일 100명씩 총 1,000명에게 스크래치 복권을 통해 순천만의 특색이 담긴 이벤트를 진행하며, 전통 갯벌 어업을 모티브로 한 ‘빨배팝’ 체험 기회도 제공한다. 전 세계 참관객들을 겨냥해 실용성을 더한 디자인 밴드 세트와 손부채 브로슈어 등 맞춤형 기념품도 배포할 예정이다.

／**순천=조순의 기자**

‘고흥애(愛) 나눔 여행’

고향사랑기부체 이벤트

고흥군은 초여름관광객 증가 시기를 맞아 고흥사랑기부체 참여 확대와 현장 홍보 강화를 위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초여름 바람 따라, 고흥애(愛) 나눔 여행’ 이벤트를 운영한다고 밝혔다.

이번 이벤트는 주요 관광지 방문객 증가 시기에 맞춰 관광객 대상 현장 홍보를 강화하고, 고흥사랑기부체 참여 분위기 확산과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 기간에 고흥군에 10만 원 이상 기부한 기부자 중 문자 수신에 동의한 참여자는 자동 응모되며, 무작위 추첨을 통해 총 300명에게 다이소 모바일 쿠폰 1만 원권을 제공한다. 고흥사랑기부체는 10만 원까지 전액 세액공제 혜택과 함께 기부금의 30% 이내 담례품을 받을 수 있어 기부자들의 관심이 높다. 군은 이번 이벤트를 통해 세액공제와 담례품, 경품혜택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참여형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군은 주요 관광지 및 리조트 등 관광객 유동이 많은 장소를 중심으로 현장 홍보를 확대하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누리집·민간 플랫폼 등을 활용한 온라인 홍보도 병행 추진한다.

아울러 6월 호국보훈의 달을 맞아 독립운동가 서민호 선생 선양사업 등 지정기부사업 홍보도 함께 추진해 단순 기부를 넘어 의미 있는 나눔 문화 확산에도 힘쓸 예정이다.

보성, 청년 취·창업 지원 ‘드림-업 프로젝트’ 추진

역량강화·취업성공지원금 등 단계별 최대 50만원 지원

보성군은 청년들의 취업·창업 준비 과정에서 발생하는 경제적 부담을 덜고 안정적인 지역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2026년 보성 청년 드림-업(DREAM-UP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사업 기간은 2026년 12월까지이며, 총사업비는 6천만 원(고향사랑기부금 100%)이다. 지원 대상은 신청일 기준 보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3개월 이상 계속 거주하고 있는 18세 이상 49세 이하 청년으로, 예산 소진 시까지 선착순으로 지원한다.

지원금은 1인당 최대 50만 원으로 ▲자격증·어학시험 응시료 등을 지

원하는 역량강화지원금(최대 20만원) ▲면접 준비, 취업 교재 구입, 창업 교육비 등을 지원하는 취업·창업 활동지원금(최대 30만원) ▲취업 후 6개월 이상 근무한 청년에게 지급하는 취업성공지원금(20만원)으로 구성된다.

신청은 매일 30일까지 주소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면사무소)에서 접수할 수 있으며, 신청자는 신청서와 주민등록초본,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사실증명, 통장사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거주 기간, 나이, 취업 여부, 중복 지원 여부 등을 종합 심사해 대

상자를 선정한다. 지원금은 신청 월 다음 달 10일 이내 지급될 예정이다.

특히, 취업성공지원금은 취업·창업 활동지원금 수령 여부와 관계없이 별도로 신청할 수 있어 자격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이라면 추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인구정책과 기획 과정은 “청년들이 취업과 창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부담 중 하나가 각종 시험 응시료와 준비 비용”이라며 “이번 보성 청년 DREAM-UP 프로젝트는 통해 청년들의 역량 강화와 사회 진출을 지원하고, 지역에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보성=장국도 기자**

보성, 조림지 풀베기사업 안전·직무교육

중대재해 예방·온열질환 대응 강화 앞장

보성군은 최근 ‘2026년 조림지 풀베기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에 앞서 현장 근로자와 관계자를 대상으로 ‘현장 안전사고 제로(ZERO)화를 위한 특별 안전 교육’을 실시했다고 1일 밝혔다.

‘조림지 풀베기사업’은 조림 초기 묘목의 생장을 저해하는 주변 잡목과 잡초를 제거해 건강한 산림 조성을 돕는 사후관리 사업이다. 특히 여름철 산림 현장에서 진행되는 작업 특성상 폭염과 각종 안전사고 위험률이 높아 철저한 안전관리가 요구된다.

군은 사업 착수 전 특별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작업자들의 안전의식 제고와 현장 대응능력 강화에 중점을 뒀다.

교육에서는 작업 전 안전 점검 회의(TBM) 운영 방법과 개인 보호구 착용 수칙을 비롯해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기본 준수사항을 집중적으로 안내했다.

또한, 낮 기온 상승에 따른 온열질환 예방 수칙과 응급조치 요령을 교육하고, 여름철 야외 작업 시 발생할 수 있는 뱀·벌 등 독충에 의한 물림·쏘임 사고 예방 및 대처 방법도 함께 교육해 현장 대응력을 높였다.

군은 사업 기간 동안 현장대리인과 감리원 등 관계자 간 협조체계를 강화하고, 안전수칙 준수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는 등 안전관리 활동을 강화할 방침이다.

／**보성=장국도 기자**

구례, 하절기 환경오염행위 특별감시·단속

6~8월 집중단속...오염물질 무단배출·녹조 발생 사전 차단

구례군은 장마철 및 하절기 집중호우 기간에 오염물질 무단배출 등의 불법 행위로 인한 공공수역 환경오염과 녹조 발생을 사전 예방하기 위해 6월부터 8월까지 자체점검반을 편성하여 특별감시·단속을 실시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사업장 내 배출시설 사전점검을 통해 집중호우로 인한 오염물질이 빗물과 함께 공공수역에 유입되는 것을 방지하고 녹조 발생 및 환경오염 불법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해서 실시한다.

점검대상은 주요 하천 주변과 폐수·대기배출시설 및 개인하수·가축분뇨 배출시설, 폐기물처리사업장 등. 전 세계 참관객들을 겨냥해 실용성을 더한 디자인 밴드 세트와 손부채 브로슈어 등 맞춤형 기념품도 배포할 예정이다.

구례군은 사전홍보 및 계도 기간을 운영하여 6~8월 오염물질 유출 우려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단속 및 감시활동을 추진하며, 집중호우 등으로 파손된 방지시설의 시설복구 유도 및 기술지원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위반 사항이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에 의한 고발 및 행정처분 등 강력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구례군 관계자는 “집중호우 등 취약 시기를 틈탄 불법행위를 철저히 감시해 환경오염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며 “특별단속기간 동안 제한된 행정력만으로는 단속과 감시에 한계가 있는 만큼 군민들의 적극적인 신고와 사업주의 책임 있는 환경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구례=한창철 기자**

광양중앙도서관, 박지훈 변호사 생활법률 특강

4일부터 선착순... 27일 강연

광양중앙도서관은 대표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인 ‘모두의 서재’ 2강으로 박지훈 변호사를 초청해 생활법률 특강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모두의 서재’는 역사·문학·법률 등 다양한 분야의 명사를 초청해 시민들이 인문학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마련한 광양중앙도서관의 대표 인문학 강연 프로그램이다.

강연은 오는 6월 27일 토요일 오후 2시 광양중앙도서관 별관 1층 문화공간 ‘하루’에서 열린다. 주제는

‘일출신법: 알면 힘이 되는 생활 법률 이야기’로, 생활 속 법률 퀴즈를 비롯해 급전소비대차, 상가임대차보호법 등 시민들이 알아두면 유용한 생활 법률 상식을 다양한 사례로 풀어내며 진행할 예정이다.

강연을 맡은 박지훈 변호사는 방송과 유튜브, 시사·교양 프로그램 등 다양한 매체에서 활동하고 있는 법률 전문가다. 참여 신청은 6월 4일 오전 10시부터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광양시립도서관 누리집 또는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광양=조순의 기자**